



역사는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다

KBS 월화드라마 <한성별곡-正>

전주영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타개하고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역사 학습의 목적과는 달리, 역사는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현실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보다는 ‘암기할 것이 많은’ 시험 과목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왔다. 400페이지 남짓 하는 국사책은 반만 년이 넘는 한반도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살아 있는 역사의 증인이 아닌, 교실 밖으로 결코 그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죽은 지식의 전달자로 그 위치를 견고히 해왔다. 역사를 배우면서 습득된 지식들은 실생활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다가,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잊혀져갔다. 역사는 그렇게 삶과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뿌리째 흔들어놓으며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 드라마가 있다. 바로 2007년에 7월 한 달 동안 방영되었던 KBS 월화드라마 <한성별곡-正>이다. <한성별곡>은 국사 교과서의 초반부에 실린 역사 학습의 목적을 쓸데없는 서론이라고 생각하고 멀찌감치 밀쳐놓지 않고, 오히려 가슴에 잘 새겨두었다 실천에 옮겼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한층 더 가깝게 연결해주고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준 드라마였다. 때는 1800년 조선의 수도 한성, 그곳에서 우리는 봉당정치의 폐단으로 붕괴 직전까지 다다른 조선 정부 내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하루하루 사투를 벌여가는 조선의 정치인들과, 개화하는 의식과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선의 후진 정치가 엇갈린 틈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피상적인 것으로만 다가왔던 후기 조선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들은 주인공 박상규, 이나영, 양만오, 그리고 정조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물음과 처해 있던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백 년 전의 인물들의 삶이 어떤 다큐멘터리나 고발 프로그램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다가온다.

사극, 처음으로 21세기와 소통하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사극을 구성해왔던 전형적인 포맷은 어느 특정한 일대기였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적 인물의 일생이 사극의 소재가 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그 전통은 깨어지지 않고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2007~2008년도 기준: <이산>, <대왕세종>, <왕과 나>). 퓨전사극

이라고 하여 사극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는 수차례 있었으나 (<태왕사신기>), 그것마저 기존 인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 입각해 각색한 것이 많았으므로, 역사책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한정되어 있는 자료로 인해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현대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영화와 달리 장기적인 방영을 목표로 하는 사극 드라마의 특성상 새로운 스토리를 창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의 삶을 다루는 것이 안정적인 드라마를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극은 특정인의 일대기로 소재가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은 대부분 당시 주인공의 내적 심리와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을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악 대립 구조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원인들을 간과한 채 주인공을 영웅화시키는 사극은 신화적인 클리셰, 신화적인 재미를 유발하며 단순한 구조의 영웅물 혹은 영상으로 만든 위인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고, 진지한 화두를 던지기보다는 흥미위주로 드라마를 보는 경우도 잦았다. 이러한 선악의 구별이 뚜렷한 드라마의 색깔상 시청자들이 사극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권선징악이나 유교적 덕목들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뚜렷한 일대기 형식의 사극 드라마에서는 시청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다는 느낌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사극의 가장 큰 한계점은 사극은 윤리적 메시지 전달 외에 실존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부여, 민족의식 고취같이 세울 수 있는 목표의 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존의 사극에 비해 <한성별곡>은 가히 ‘혁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성별곡>은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정조가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드라마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 캐릭터와 정조의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시대 각기 다른 계층을 대표하던 전형적 인물들로 구성된 주인공들의 인생에 하나하나 시선을 던지며, 그들이 내몰린 상황에서 한 선택들이 어떻게 파멸을 불러오는지 과정을 관찰해나간다. 정조는 끊임없이 자신을 없앨 궁리만 하고 있는 정치 세력 위에 군림하고, 파토난 정치에 개혁을 일으켜 조선의 수백만 백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조선의 고독한 왕이었고, 박상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나 얼자라는 출신 때문에 문과에 응시해보지도 못하고 군관이 되었으며 이나영은 양반 집 규수였으나 아버지의 역모죄로 집안이 몰락한 뒤 최하층계급으로 전락한다. 양만오는 천인 출신으로, 양반이 주도하는 사회에 불신을 품고 상놈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으나 자꾸만 자신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낀다.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도, 냉혈한 정치판의 현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모에 휘말렸던 인물들이 각기 다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유를 가졌기 때문에 인물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선부른 선악 구분을 유보하게 된다. 그래서 <한성별곡>은 악인과 정인의 대립보다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립’으로 함축되는 것이 더 알맞게 된다.

더욱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성별곡>이 드라마에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예 중 하나는 지금까지 사극이 범접하지 못했던 ‘정치’라는 영역을 진지한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규정해놓은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정치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사극뿐만 아니라 현대극에서도 직접적으로 다뤄진 적이 드물었다.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성별곡>이 화두로 던지는 정치는 그 의미에 대한 고찰부터 실제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현실 정치에 대한 풍자까지 넓은 영역을 아우른다. 인민들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싸움의 장이 되어버린 정치의 변질된 의미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치의 치열함과 냉혹함에 집중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오마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조선 정부 내 시파와 벽파의 충돌을 참여 정부 당시 대통령과 야당의 그것과 놀랄 정도로 흡사하게 그려낸 <한성별곡>의 과감한 도전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극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대해 논했다는 점을 높게 산 시청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었다. 어느 특정인의 묘사를 제외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계획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또 자신과 뜻이 다른 이들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던 조선의 정치인들은 현재의 정치인들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시청자들이 영의정, 우의정같은 사회지배층이 논리에 의거한 토론이 아니라 격식 떨어지는 막말을 동반한 몸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면을 보면서 흡사 지금의 정치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다

‘현재는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진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한성별곡>

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는 8화 내내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제기하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정(正)이란 과연 무엇인가.’ 비록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이백여 년 전의 조선 사람인 상규, 만오, 나영, 그리고 정조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정조는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벽파와 백성들의 거센 비난 여론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개혁을 실행에 옮겨가지만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들이 늘어만 가자 과연 아무도 승인하지 않는 고독한 길을 걷는 것이 옳은 일인지 회의에 젖어든다. 박상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한 세력들과 결탁해야 하는 현실에 진저리치도록 괴로워하고, 이나영은 자신이 양반 집 규수로서 배워왔던 지식들이 응고되어 태어난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체험하면서 이상향에 닿지 못해 좌절한다. 양만오는 비천한 출신으로 태어나 상놈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부를 축척하지만 그가 노력할수록 그가 구현하고자 했던 평등한 세상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양반들에게 가로막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시대의 특성상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선택 앞에서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것과도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선택과 갈등 앞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한다. 자신의 가슴 속에 품은 신념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두 갈래로 벌어진 갈림길에서 최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어느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신념—〈한성별곡〉은 이것을 정(正)이라고 명했다—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하루하루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한 번씩 돌아보고 망설였고, 또 그 정(正)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곳을 향한 길을 걸어나갔다.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한성별곡>의 메시지 때문에 시청자들은 단순히 제3자로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에게 자신을 대입시켜 좀 더 능동적으로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과 맥락을 같이하는 인물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고, 이질감 없이 역사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게 된다.

드라마 후반부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나영에게 정조가 하는 말은 <한성별곡>이 담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를 내포하고 있다. “나의 신념은 현실에 조롱당하고, 나의 꿈은 안타까운 희생만 키워가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나는, 과연 옳은 것이냐?” 자신이 선택한 정(正)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왕은 매일 매일 같은 문제로 괴로워할 시청자들에게 더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역사는 ‘낡고 오래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2008년의 대한민국, 1800년의 조선에게 길을 묻다

<한성별곡>은 사극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형식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기존의 사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면상으로는 추리 스릴러를 표방했지만 내면에는 시청자들의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심각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 역사와 현재와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사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2007년의 큰 발견이자 드라마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쁨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1800년 조선에서 이백 년이란 시간이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성별곡>이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 두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할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결코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해서 고민하고 자문하지 않는다면 옛날에 만들어졌던 실패와 실수가 다시 반복 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가능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성별곡>은 비록 비극으로 치달았지만, 시청자들에게 ‘소망’을 전달 하고 그 뜨거웠던 불씨를 사그라뜨렸다. 박상규와 이나영이 죽고 난 뒤 강가에다 그들의 뺨가루를 뿌리던 기생 월향은 청나라로 같이 가겠냐는 만오의 제안에 배를 묻지르며 거절한다. 그 배 안에는 상규의 아이가 있었고, 월향은 부드럽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말한다. “이 아이에게 아버가 소망하던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그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의 아이가 두 분 소망하던 세상에서 살겠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었지만 어딘가에서, 그 빛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던 <한성별곡>. 그리고 그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1800년의 조선에게 길을 다시 물어야 할 때다.